



## 탈춤체로 몸부림치는 충주지부

옛부터 충절의 고향으로 유명한 충주!

국내 최대의 다목적 댐과 수안보 온천 및 국립공원 월악산으로 둘러 싸여진 충주를 기자가 찾은 날은 마침 백설이 온천지를 뒤덮어 월악산의 설경이 신천지를 방불케 하는 날이었다. 욕심 같아선 취재에 앞서 월악산 등반부터 하고픈 심정이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은 충주지부로 향하고 있었다.

기자를 반기는 아담한 사무실에는 회원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회원상황표를 비롯하여 시세현황표, 돼지고기 소비추진 팸플렛, 각종 회사의 사양 안내서 등이 가지런히 붙어 있었으며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축산기자재들도 전시되어 있었다. 마침 기자가 방문한 날이 충주지부의 이사회가 있는 날이어서 취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지부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

### 대부분 부업농 못 벗어나

1981년 충주지방 양돈인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발기한 계(契)를 모태로 하여 결성된 충주지부는 현재 25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100~200두 정도의 돼지를 사육하는 규모이고 4~5명은 50두도 안되는 영세 사육농가이다.

지부가 창립되면서부터 빠른 정보와 회원들의 단결로 중간상

인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었으며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이 부업양돈인 관계로 약 2년전부터 협회의 활동이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다시 중간상인들의 횡포와 농간이 고개를 들기 시작해 그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출하돈의 체중을 70~80kg 정도로 한정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있어 현재는 출하돈의 50~60%를 서울 도매시장이나 육가공 공장 등으로 출하하고 있는 실정이며, 충주 지방은 이천 등지의 돼지가 내려오는 역류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충주지부가 안고 있는 당면문제 중의 하나로 이의 해결을 위해 전병관 총



▲충주지부를 창립당시부터 이끌어온 허 현 지부장

무는 “지부가 다시 활성화되고 단결해서 판매의 일원화를 이뤄야 되겠으며 육질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고 강조하며 머지않아 이를 실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 회원확보와 정예화가 급선무

**충** 주지부가 안고 있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2년전 지부운영에 불만을 품고 탈퇴한 10여명의 옛 회원들을 다시 포용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문제는 대화와 양보로 풀어야 하는데 서로의 주장이 너무나 팽팽한 데서 비롯된 것 같았다. 이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허 현 지부장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하면 끝 다시 뭉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

며 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70~80%의 협회 가입율을 100%로 끌어올려 명실상부한 충주지부가 되도록 하겠다」며 「지금의 회원들은 규모는 작지만 협회일에 적극적」이라고 자랑했다.

사육두수가 20두도 안되는 영세한 회원들은 탈퇴를 권유해도 같이 하겠다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지부를 이끌어 온 허 현 지부장의 관록으로 봐서 이러한 문제들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충주지부는 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잘 운영되는 지부를 찾아가서 운영상태 등을 파악하여 지부운영에 참고로 하는 등 창립당시의 의욕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인간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올해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시행하려는 사업은 지부운영의 활

성화를 위한 기금조성사업이라고 했다. 앞으로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상정될 기금조성(안)은 자조금제도 (check-off system), 또는 사육규모별 부과금제도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 실현되면 사무실부터 좀더 크고 편리한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했다.

### 지방도축장에도 박피시설을 설치해야

**충** 주시의 도축장은 다른 지방도시와 마찬가지로 박피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출하하는데 불리한 점이 많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90~100kg 까지 길러야 경제성으로 봐서 가장 타당한 출하체중인데 박피를 하지 않는 관계로 정육업자들은 70~80kg의 돼지를 원하고 있어서 지방 출하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하루빨리 대도시와 같이 지방도축장에도 박피시설을 설치하여 생산자들이 경제성이 있을때 출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연동제 가격에 많은 회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동제의 취지는 중간상인들의 폭리를 방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타당한 가격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인데 근본 취지와는 달리 매우 비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불평이다.

정태석 부지부장은 “연동제 가격의 근본 취지를 살려 생체값의 등락에 따라 탄력있게 운용하여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생산자가 싸게 팔고 있는데도 소비자는 비싸게 구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이상인 부지부장은 “연동제 가격의 운용에 있어 결재과정 등이 너무 복잡할 것 같다”며 “관계당국에서는 전결권 등을 활용하여 실무자선에서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 불황대비에 안간힘

**충** 주지부에서는 불황에 대비하여 일반 예상과는 달리 호황에도 불구하고 사육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6년 하반기나 '87년 상반기에 불황이 예상되는데 어떤 대비책을 세우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임병준 씨는 “나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들이 사육 규모를 줄이고 있다”며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 수준에 맞는 경영을 하면 무리없이 불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가 좋고 나쁨에 구애됨이 없이 꾸준히 양돈을 하는 우수한 양돈인만 돼지를 기른다면



▲회의가 끝난후 음료수를 들면서 담소하는 회원들

「양돈불황」이라는 말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된다”는 김태식씨는 불황에 대비하여 생산성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검정소로부터 우수한 종돈을 구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회원들에게도 우수종돈 확보를 권유했다.

검정소에서 종돈을 구입한 적이 있다는 이상덕 씨는 검정소의 개선점을 묻자, “낙찰가가 조금 높은 것 같다”며 하한선이 있는 만큼 상한선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며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종돈을 분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으로 경매방법의 개선과 적정한 분양가가 확립되면 많은 소규모 양돈인들도 부담없이 좋은 종돈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다.

### 의료보험 실시했으면

중앙회에 건의할 사항을 묻

자 충청도 특유의 검손함 때문인지 “지부운영을 잘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건의사항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건의를 했다.

① 의료보험을 실시하여 모든 양돈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자.

②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척관법은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미터법이 정착되도록 양돈지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자.

③ 정확한 통계와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회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기자에게 이사회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너무 많은 문제점을 보여줘 미안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지부를 활성화시켜 보일테니 지켜보라고 했다.

〈취재 : 최 승덕〉